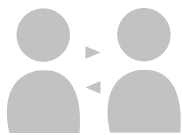


2015년 여름호 통권 58호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 광명여성의전화



☎ 여성인권운동은 사랑입니다.

(사)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주 소 : 광명시 도덕공원로 64-1(철산동 472-138) 이메일 : kmwhl@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mwhl.org

카 페 : cafe.daum.net/kmwhl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mwhl 트위터 : https://mobile.twitter.com/gmwhl

연락처 : 02) 2614-7370(대표) / 2060-0245(상담소) / 2060-2545(상담) / 2614-7673(fax)



표지 설명: 경기1366과 함께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보라데이

글의 순서

[글의 순서] [권두시]	2
[여는글]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3
[생각창고] 기획글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이라고?	4~5
[상담통계/상담사례/여성폭력피해자 연계 강화사업]	6
[회원글방]	7
수요집회 참여후기 / 도경진 폭력없는 평화의 달 행사를 마치고 / 박미선	
[생활활동방] 으샤으샤~ 광명여성의전화	8~11
[와글와글 소모임방]	12
[이런 활동이 있어요]	13
[소모임 소개 / 활동계획] [모집공고]	14
[회비 및 후원금 납부]	15

발행처 (사)광명여성의전화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64-1 3층

이메일 kmwhl@hanmail.net

발행인 조상희

편집위원 김삼녀, 박은경, 강남, 박순향

발행일 2015. 6. 30.

전화 02-2614-7370 / 2060-0245

상담전화 02-2060-2545

F a x 02-2614-7673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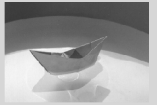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거름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都鐘煥, 1954년 9월 27일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제8회 신동엽창작기금을 수상하였다. 1997년 제7회 민족예술상, 2006년 제2회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2008년 제2회 제비꽃시인상, 2009년 제22회 정지용 문학상, 2010년 제5회 윤동주상 문학 대상, 2011년 제13회 백석문학상, 2012년 제20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믿으세요.
사소하지 않았던 폭력과 차별의 순간을 바로 지금 말하세요.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2015년 한국여성의전화 연중 캠페인이다.
누구든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은 많다. 단지 그것을 사소하다는 이유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사소하다고 부러 외면하다 보니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들이다.

TV프로중에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프로그램이 있다. 걱정말아요 그대.
지극히 사소한 서로의 고민들, 걱정거리를 청중들과 즉석에서 같이 고민보따리를 풀어놓고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그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고민들은 학업, 취업스트레스, 외모로
평가되는 사회, 남녀에 따른 임금 차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의 고단함,
결혼은 하고 싶으나 과거 부모님의 결혼생활을 보니 선뜻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솔
직한 이야기들,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진행자 자신의 오랜고민거리인
결혼도 볼멘소리로 청중들과 함께 나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참여자
들이 함께 느끼게 만든다. 개인적인 고민이 집단의 힘으로 갈 때는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
로 내뿜음을 눈으로 보고 느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다.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있어요
라는. 그러니 우리 같이 힘을 내요 라는 ~ 그렇게 말하는 듯 하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 했을 때 적적 답이 나오고 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끔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차별당하기도 하고 그 사소한
것들에 누군가는 억압을 당하고 편견에 벽에 갇혀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 전혀 사소하지 않는 일들은 그렇듯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버젓하게 살아있
어서 어느 순간 손이 올라가고 발로 차고 목소리가 커지고 눈을 치켜뜬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수록 그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 되버린다. 둔감해지기 마련이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도로주행을 방해했다고, 예고
없이 끼어들었다고 차에 매단채로 질주를 하고 위아래집 소음문제로, 기분나쁘게 쳐다봤다
고, 욕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폭력이 발생한다. 그것은 사소할
수도 사소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사소함은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인가가 잘못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말하자. 사소한 것들을 지키고 살자. 당장 주변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상황들에 대해서 지나친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자, 있다면 같이 고
민하고 풀어갈 마음부터 가지자. 당장 !! 함께 살아갈 세상이다.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자.
당신의 무관심이 폭력을 낳습니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이라고?

헤럴드경제(HOOC)는 6월 15일 기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를 토대로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비율 2배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포했다.

폭력 피해 여성을 ‘맞고 사는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도 마땅치 않지만,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비율 2배 증가’라는 것을 토대로 ‘맞고 사는 여성? 이제 옛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표현의 문제를 넘어 정보를 왜곡하고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애초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상담소에서 상담을 위탁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2004년 남성 63명(92.6%), 여성 5명(7.4%)에서 2014년에는 남성 77명(82.4%), 여성 16명(17.2%)으로 여성행위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4년에는 1쌍의 부부가 함께 위탁되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11쌍의 부부가 함께 위탁된 점으로 보아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하여 아내가 맞대응한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상담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님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자료가 보여주는 실태는 단순하다. 여성비율이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가해자의 80% 이상은 남성이라는 것이며, 그나마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대응폭력의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럴드경제는 단순히 여성행위자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2배가 증가했다는

것에만 포착하여, 가정폭력에서의 젠더권력관계를 비가시화시키고, 본질을 호도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비율 증가는 젠더관점으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더불어 폭력의 최초 시발자, 피해의 정도, 폭력의 성격, 폭력 발생의 맥락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6년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만 최소 566명이다. 대체 무엇이 “옛말”이란 말인가.

2014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14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4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소한 57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최소 1.7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3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범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26%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10대 피해자는 두 배 늘어나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이별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았다.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재혼남성 등 3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 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57명 중 동료·친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7명, 부모·형제·자매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처형과 아들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내연녀와 갈등을 빚던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숨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 등 피해여성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여성에게 대한 폭력은 사소한 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사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대변되는 경찰 25.7%가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여성폭력사건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처가 계속 반복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넘어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폭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정부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4년 분노의 게이지 중 일부



2015년 3월 ~ 2015년 5월 상담통계 및 상담사례

▶ 상담통계

구분	총계	가정 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성폭력	이혼	성매매	성상담	부부 갈등	가족 문제	중독	기타
3월	93	81	12	0	0	0	0	0	3	0	9
4월	115	103	12	2	0	0	0	0	5	0	5
5월	70	63	7	1	0	0	0	0	1	0	5
누계	278	247	31	3	0	0	0	0	9	0	19

▶ 상담사례



상담내용

신혼초부터 싸우다보니 기차길 평행선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밤부터 새벽까지 관두자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다. 그동안 알콜 문제로 입퇴원을 3차례 반복하면서 사업스트레스 음주, 친구문제로 사람이 변한 것 같다. 대화 전혀 안되고 일방통행이다. 지금은 알콜 병원 입원하려는데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원인제공을 해놓고 내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한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피해자인 아내와 행위자인 남편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에서는 아내의 자존감 향상, 남편은 폭력행동 교정을 통한 폭력재발방지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02-2060-2545 문의 바랍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연계 강화 사업

■ 목표

폭력 위기상황의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긴급보호를 통해 숙식제공과 의료지원 및 신속한 상담으로 폭력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육체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일시 : 12월 31일까지

◎ 대상 : 가정폭력상담자 중 폭력피해자와 자녀

(*긴급보호대상자 외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 내담자 포함 → 쉼터나 긴급피난처에 입소해야 할 상황인데도 피해자가 입소 결정을 못하는 경우)

관할경찰서로부터 분리보호 요청된 피해자와 자녀

◎ 지원내용

- 피해자 신청 - 상담(전화상담, 면접상담)
- 보호대상자 결정 - 의료지원, 법률지원, 심리검사, 전문가 상담
- 쉼터 입소 또는 귀가(피해자 결정으로 쉼터에 입소를 원할 경우 연계)





수요집회 참여 후기



도경진(회원)

제1173차 위안부 수요집회를 다녀와서

2015년 04년 08일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함께 평화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TV에서만 보던일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자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집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스카프를 하고 있는 소녀상이었다. 슬퍼보이며 한곳을 바라보는 소녀상을 직접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일본대사관은 굳게 닫힌 문과 함께 경찰관이 호위하고 있었다. 또 건물의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안에서든 밖에서도 보이지 않아 이 집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 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의 참가였다. 그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대신 사과하고 위로 하였다. 자신의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가족을 죽인 한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했지만 우리의 진심어린 사과에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지하며 집회에 참여하였다. 집회에 참여하신 할머니들은 나이가 지긋하시고 건강이 좋아보이지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참여하시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집회는 예상시간 보다 더욱 지체되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고 뜨거운 열기로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처음 참가하는 나는 이런 집회가 너무 부담스러웠으며 혹시나 거친 행동들이나 무리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지 않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직접 참가 해보고 그들의 목숨된 인권과 함께 억울함과 그 긴 시간동안의 아픔이 '나의 작은 참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며 좋겠다.' 라는 생각할 만큼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 '할머니들을 위해 작은 보상하나 없이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에 그동안 알면서도 그 집회에 관심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

여러 곳의 단체와 내가 참가한 여성의전화 3개 지부가 함께 집회를 이끌어 갔고 많은 기자분의 참여도 이 집회가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는 것과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 가시 전 빼놓여진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었다. 우리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억울함은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심을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일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번집회를 통해 나 하나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이 뜨거운 열기를 가슴에 품고 할머니들에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마음으로 응원을 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 🌟

폭력없는 평화의달 후기

폭력없는 평화의 달 행사참여 후기



박미선(회원)

지난 5월, 광명출신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표상인 오리 이원익 대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리는 제 24회 오리문화제에 '광명여성의전화' 회원으로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광명여성의전화는 5월은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을 머리 위로 걸고 광명여성의전화 회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시작하였다. 가족폭력에 대한 O.X 퀴즈와 가정폭력예방 문구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풍선을 받아가며 가정폭력예방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나는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서명을 받으며 가족폭력은 사소한 일이 아닌 심각한 사건임을 설명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은 가정폭력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피해 여성의 입장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도움이 되고자 서명을 하였다. 폭력의 심각성과 잔인함을 고려하지 않는 집행부보다 가해자, 피해자의 이웃인 시민들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황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다.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관심과 일상의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이를 가능하도록 활동하는 광명여성의전화를 통해 광명의 인물 오리 이원익 대감의 정신이 계승되기를 기대해본다. 🌟



가정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교육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은(3월 17일 ~4월 22일)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가정폭력 근절과 여성주의가치관형성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예방 및 피해자 대상 교육·상담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폭력예방교육 강사과정

폭력예방교육 강사과정은(4월 23일~4월 30일) 강사과정의 이론 및 실제사례, 강의안작성법과 모니터링 강의시연을 통해 강사활동에 강의 스킬을 익히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실질적 전문가로서의 문제 예방과 효과적인 강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여성의전화 모든 지부는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행사를 한다.

5월 16일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는 가정폭력의 인식개선과 가정폭력근절 캠페인, 가정폭력정당방위사건 서명운동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폭력근절 활동을 하였다.



보라데이(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

4월 16일 수원역에서 보라데이 캠페인이 있었다. ‘보라데이’는 2014년 8월 8일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지않고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매월 8일마다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로 지정되었다. ‘보라데이’의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 1366과 함께 하였으며 광명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종사자교육’ 수강생들과 함께 참여 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이 형성과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인권 감수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교육은 5월~12월 광명시 초·중·고·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이다.



소방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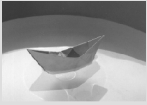
5월 20일 소방안전교육은 화재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등의 예를 들어가며 화재사고 및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했으며 일상에서의 재난사고에 대처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녀를 위한 성문화지킴이 - 부모성교육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에서는 자녀를위한 성문화지킴이 부모성교육이 5월 6일~6월 5일까지 매주 수,금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다.

성 드러내기와 자기점검·양성평등한 가정 사회·폭력과 성의 관계 부모교육·부모자녀대화법 등의 내용으로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회 · 원 · 탐 · 방



여전 : 황미례 자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군요. 지난번 바자회 한다고 할 때 의류를 전해 주시느라 방문하셨고 작년 송년회 때는 참석하신다는 문자는 주셨는데 못 오신거죠?

황 : 네 맞아요. 제가 한참 참석을 못했지요? 가게일도 그렇고 상담공부와 교회일로 바쁘게 지냈어요.

여전 : 2009년 봄부터 회원 활동을 하신걸로 아는데 여성의전화 회원은 어떤 계기로 되셨나요?

황 : 교육을 통해서 되었지요. 그때 가정폭력 100시간 교육을받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렸어요. 지금도 가게로 찾아오는 동기도 있고 정소장님도 가끔 오셔서 얼굴보고 가고 그러지요.

여전 : 선생님은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회원되신지 오래 되셨는데 그 동안 [여성의전화]하면 어떤느낌이 드나요?

황 : 처음에 교육으로 인연이 되었는데 참 그때 저는 학력 미달이라고 수료증을 안 주는 거예요.(호호) 나중에 학위마치고 수료증 받아왔지요. 제가 국장님이라 정애숙 소장님을 좋아 했지요.(웃음) 여성의전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요. 편견도 벗을 수 있었고요. 모두 자기 편견이나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렵거든요.

여전 : [들꽃]이란 상호는 어떤 의미로 누가 지으셨는지 저는 [들꽃]하면 풀꽃이란 시가 생각나요. 가게 앞에 놓아 둔 예쁜 화분들을 보니 야생화를 좀 더 키우면 더 멋스러운 것 같은데 꽃을 좋아하시나봐요.

황 : 네, 저도 꽃을 좋아해서 화분을 많이 키워 봤는데 밖에 놔 두면 밤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들꽃]은 남편이 수련회 다녀 와서 지어준 이름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시기까지하고.....

여전 : 그래서 회원탐방이 있는거예요. 여성의전화 활동 참여가 뜬 회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지요. 여성의전화 참여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도 있었나요?

황 : [가정폭력 100시간]을 통해서 편견도 많이 깨지고 상담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심리검사나 상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 가게를 하면서 상담공부와 봉사를 하는라고 바빴지요.

여전 : 여성의전화를 생각하면 어떤기대가 있으신가요?

황 : 작년부터는 세월호 보상요구에 대한 집회 참여를 여성의전화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의전화에 잠깐 실망했는데 터 놓고 이야기 하자면 세월호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싫었어요.

여전 : 세월호 집회참여 안내 문자를 받고 그러시는는 것 같은데 여성의전화가 함께했던 세월호사건의 유가족들도 여성의전화도 보상요구를 한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라는 거였어요. 국민들이 자세히 알 권리를 달라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함이었어요.

황 : 아~~네 ~ 제가 잘못 알고 오해를 했군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대화를 해봐야 안다니까요.(호호)

여전 : 계획이라든지 소망하시는 일이 있다면?

황 : 아들이 며칠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면 좀 더 자유롭게 내 일을 할 수 있을것같아요. 지금 하고있는 숙녀복 가게도 계속 할 것이구요. 이번을 계기로 여성의전화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 활동할겁니다.

여전 : 아드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랑스런 아들부부의 모습을 보며 즐거운 일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회원나들이] 우리 캠핑했나~

5월 12일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개이고 화창한 오월 회원들과 도덕산캠핑장으로 모였다. 참여회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생태 해설과 함께 숲속을 산책했다. 해설을 맡은 김희수(광명여성의전화 자문위원)은 하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태해설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우리는 우주를 보러 온 것이다. 대 우주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아침엔 기운을 밀어 넣고, 밤은 자야하고, 밥도 해지기 전에 먹어야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것인데 거스르고 산다. 때(時)가 흠을 만나서 節(절)을 맺어

야 하고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대우주의 원칙대로 우리몸을 재부팅해야 한다.'

김희수자문위원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식물이 꽃이 피면 벌레가 있는 먹지 않는다. 토끼도 꽃부터 먹는다.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녀서 그렇다. 학교를 안 다니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학교를 많이 다니고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보같아진다. 간 전공하면 간 밖에 모르고, 위 전공하면 위 밖에 모른다. 공부는 하늘 공부를 해야 해야한다." 김희수자문위원의 심오한 이야기에 숙연함까지.... 나무 하나 하나의 의미를 일러주었다. 길가에 핀 개갯쟁이, 인동초, 찔레꽃, 생강나무 등도 하나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일하나를 때어낼 때면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도덕산을 병풍삼아 캠핑장에 둘러앉은 회원들과 점심을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바쁜일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그래도 17명의 회원들이 함께 해 아카시아꽃 향기속에 우리도 한 무리되어 광명여성의전화 회원의 꽃으로 피어났다. 다음 나들이는 언제예요!!!

회원생일행사



4월부터 6월까지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한 생일 잔치가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4월엔 철산CGV에서 "송원" 영화 관람 후 식사를 마치고 뱃나무 아래에서 벚꽃이 되었다. 5월~6월 생일 회원들은 조조영화 [무뢰한]을 관람 후 [토담]에서 식사를 하고 포만감을 인증샷으로 남겼다. 역곡이나 강동구에 사는 회원도 함께 해회원으로서 대접받는 느낌이 좋다며 소감을 표현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당시의 상황들을 말해주는 듯 쏟아졌다. 안산에는 기억저장소라는 건물에 아이들의 방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다. 4.16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주인없는 아이들의 방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별이 되 버린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모들이 빼곡이 붙여있었다. 처음에는 같이 슬퍼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잊혀지고 무뎌지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라고 유가족들은 말을 했었다.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와도 마음 한 켠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또 한번 무거워진 세월호참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연대 시민행진



5월 15일 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광명시의회 바로잡기라는 이름으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시민대행진을 하였다. 광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철산상업지구까지 행진하며 철산역 2번 출구에서 광명시의회의 행태를 알리는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광명시의회가 시민들은 참으로 부끄럽다. 위유성 해외연수, 유사성행위, 역대도박 등 의장자리다툼부터 시끄러웠던 의회는 바람잡날 없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하루속히 의회가 정상화되는 날을 기다리고 제대로 시정견제를 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이런 활동을 해요

고고씽모임



고고씽~ 아차산 둘레길 태왕사신기 촬영지

회원들과 함께하는 여행모임 [고고씽]이 하루 전날 만해도 7명이 참가하기로 했으나 당일 사정이 생겨서 참여가 어렵게 되어 3명이 갔다. 야생화가 곱게핀 알오막한 길을 따라 주말농장이 단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고갯길따라 넘으니 태왕사신기 아차산 세트장 전에는 관람료를 받았는지 매표소도 있었으나 지금은 무료로 관람하게 했다. 고구려의 대장간마을이라 불릴 만큼 잘 꾸며진 발자취를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상담원모임



상담원 및 강사 스터디

상담원 및 강사 스터디는 가정폭력관련 종사자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고 폭력에 방교육 강사과정을 마친 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자기성장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여성역식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같은 교육을 받은 분들의 모임이라서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사모임



학교폭력예방강사

폭력예방교육 강사과정은(4월 23일~4월 30일) 강사과정의 이론 및 실제사례, 강의안 작성법과 모니터링 강의시연을 통해 강사활동에 강의 스킬을 익히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실질적 전문가로서의 문제예방과 효과적인 강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여백모임



여백은 3월 모임에 이어 4월 27일과 5월 19일에 진행되었다. 특히 5월 모임은 우렁쌈밥(철산동 구도로)에서 모였는데 바쁜 시간을 가르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6월 모임은 29일 소하동 (신쭈꾸미)에서 12시에 모인다.

코칭모임



여성경제교육 후속 모임으로 코칭스터디

이 스터디는 커리어 코칭 소모임으로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배우는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반기 모임도 기대하셔요.

야사모



회원들과 함께하는 소모임 야사모가 5월 28일 저녁 7시 산사음악회에서 함께 했다. 산사음악회는 비내리는 영동고, 눈물의 부르스, 신사동 그 사람 등으로 정통 트로트 가수인 주현미, 파초, 친구에게 수와진, 국안인 박애리씨 등이 출연해 산사에 축제의 장이 되었다. 또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마술피리(내 남자친구는 파파게노)를 해설이 있는 오페라 형식으로 가정의 달에 가족모두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생일잔치 8월, 10월

희망참여의 날 10월

회원교육 9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사업-베이징+20. 경기도 여성정책 미래전망 만들기 9월

회원소모임 고고씽 2,4주 화요일 / 야사모 1,3주 목요일
코칭모임 매월 정기모임, 비정기모임

희망나눔사업(여성인권후원의 날) 10월

연대사업 한국여성의전화/경기여성단체연합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의회/기타연대

상담소에서는

상담사업 :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시집갈등, 외도, 자녀문제, 법률, 이혼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 8월 / 광명시민회관
영화상영(천번을 불러도), 신성섭 감독과의 대화 및 토론

상담원 스터디모임 :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자기성장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여성의식강화프로그램

폭력예방교육강사 스터디모임 : 매회 폭력예방교육 출강 후
평가, 강의시연 및 피드백, 강의안 작성

가정폭력피해자치유회복 프로그램 : 8월~12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모임 소개 / 활동계획]

광명여성의전화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모임,
활동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소모임, 활동을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사무국(02-2614-7370 / 2060-0245)으로 연락주세요!
만들고 싶은 소모임이 있어도 연락주세요!!!

♥ 상담원 스터디 모임

- ▶ 우리들의 이야기 :
여성학 스터디, 상담사례 연구 및 평가, 실습

♥ 강사 모임(성교육 · 가정폭력 · 성폭력 · 학교폭력)

- ▶ 만나는 날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
- ▶ 우리들의 이야기 : 강의안 짜기, 강의 시연

♥ 영화모임(아사모)

- ▶ 만나는 날 : 월 2회(1, 3주) 화요일(밤)
- ▶ 우리들의 이야기 :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관람 후 수다 비평과 토론

♥ 여행모임(고고쟁)

- ▶ 만나는 날 : 월 2회(2, 4주) 수요일 오후
- ▶ 우리들의 이야기 : 함께하면 많은 것이 보인다.
보고 걷고 길을 내다.
지역문화 탐방 및 훌훌 떠나는 도시

♥ 인문학소모임(사·마·)

- ▶ 만나는 날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 함께하는 사람들 : 여성의전화 인문학 강의 수료생 외
- ▶ 우리들의 이야기 : 삶의 문사철을 배우고 나누며 소통함
文 史 哲

♥ 경제코칭스터디

- ▶ 만나는 날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 함께하는 사람들 : 여성경제교육 후속모임
- ▶ 우리들의 이야기 : 직업흥미검사와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수집과 나의 삶의 가치 찾기 등 코칭

♥ 여백모임

- ▶ 만나는 날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 ▶ 함께하는 사람들 : 여성의전화의 핵심 멤버
- ▶ 우리들의 이야기 : 여성의전화에 무한애정을 가지며 힘
보태주기



<모집 공고>

- 독서모임(책향)
- 동물모임(바람소리)
- 여행모임(고고쟁)
- 악기연주모임(우쿨렐레, 통키타)
- 방문화(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아사모)
- 인문학소모임(사·마·)

※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광 고]



제20회 양성평등주간행사

광명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영화제!


2015. 8. 31(월) 오후 7:00~10:00

영화상영 & 감독(신성섭)과의 대화 및 토론회



장소 광명시민회관 대강당

문의 02)2060-0245

주관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주최  광명시



여름없이 주는 나무들



● 2015년 3월~2015년 5월 회비 납부현황(총 6,937,220원)

[정회원]

강 남	김귀숙	김순자	김희수	박순서	서기남	신영화	우옥남	이남지	이윤지	임영숙	정선유	조은하	한윤정	
강명아	김남숙	김시호	남천희	박순향	서원영	신정민	원범재	이동우	이은영	임주영	정선유	조표제	허경아	
강미숙	김남혜	김영숙	남현주	박승원	서원희	신지희	유명자	이미주	이은영	장금심	정선희	조현정	허정호	
강봉임	김득예	김영숙	남혜순	박영승	서원희	신효경	유영재	이병호	이인숙	장명주	정수영	조화영	허창순	
강수정	김미경	김영아	노난심	박영신	서유리	심미선	유영미	이상진	이지은	장순미	정애숙	주봉미	허화진	
강연재	김미순	김영연	노선희	박영현	성낙용	심중식	유채영	이상화	이진영	장은주	정영숙	지미선	홍선영	
강은숙	김미순	김운순	도경진	박윤미	성남희	안성진	유혜경	이성숙	이창호	장정아	정영철	진명숙	황미례	
고성은	김미화	김용식	명이화	박은경	소용희	안지연	윤복희	이숙영	이철수	장현정	정용언	진수경	황소영	
고순희	김봉화	김익찬	박길순	박인숙	손경수	염건령	윤소정	이순덕	이하나	장현준	정윤실	진희숙	황정순	
고영은	김사론	김인자	박덕자	박정림	손민원	오교천	윤양순	이순례	이형덕	장혜경	정재희	천미영	황진희	
곽 온	김삼녀	김재문	박문영	박정실	송미숙	오남순	윤옥임	이순안	이혜순	장희순	정정용	최금숙		
구두연	김선자	김진일	박미선	박정옥	송민희	오문영	윤종미	이승부	이홍복	전영미	정지선	최미경		
권승숙	김성현	김진필	박미순	박종기	송유현	오병환	윤준순	이아영	이희숙	정경선	정형선	최 승		
권은미	김세경	김철희	박상봉	박춘자	신동열	오화선	윤희옥	이연숙	이희영	정금숙	제창록	최영자		
권태진	김수연	김춘애	박성영	박혜경	신미숙	오화영	이경애	이영숙	임무자	정덕우	조미자	최은경		
김경미	김수영	김학돈	박성운	배명옥	신수문	오후남	이금매	이영의	임선희	정명화	조상희	하숙례		
김경혜	김수진	김해중	박성자	배옥순	신영주	옥연희	이남숙	이영진	임송희	정미향	조영애	한국현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짹! 짹! 짹!

고성은, 구두연, 이은주, 김형호, 박부자, 박혜경, 박영현, 도경진, 강미숙, 이아영, 송유연, 오남순, 신영화, 김운숙, 김성순, 강희정.

여성의전화를 위한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3월~5월)

◎ 개인 및 단체 후원(총 8,237,120원)(3월~5월)

▶ 이사회비 : 1,360,000원 / ▶ 회원회비 : 5,577,220원 / ▶ 후원금 : 3,517,000원

-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회비 혹은 후원금 액수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 회비납부 CMS로 신청하세요! : 출금일은 매월 25일이며,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 10일에 소급되어 출금됩니다.
- * 후원계좌 : 광명여성의전화 농협(099-01-018174), 기업은행(167-038891-04-017), 새마을금고(9002-1595-6955-2)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 물품후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경조사나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 황미례 자문위원 : 아들 결혼 축하드립니다.
- 신동열 자문위원 : 부친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곽온 이사 : 부친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실현과 광명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및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무료 전화·면접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법률·의료·쉼터 연계 지원을 합니다.

무료상담안내

전화상담 : 02-2060-2545(상담), 02-2060-0245(사무) / **면접상담** : 전화상담 후 예약

상담시간 : 오전9시~오전12시, 오후1시~오후6시

상담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외도, 알콜, 부부갈등, 시집갈등, 자녀문제, 여성자신의 문제, 노인, 가족문제 등(성격유형검사, 심리검사)

진용 콜렉션

숙녀의류매장

광명시장내

대표 : 김 시 호

T. 010.4201.3600

우리생협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7번길 5(하안동)

뉴코아아울렛
주차장 입구

박 정 옥

T. 010.7722.4338

사회 공헌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협 동 조 합 “한 올”

- 문화관광콘텐츠 사업
- 영정(장수)사진 무료촬영 (70세이상)
- 영상물제작 및 홍보물제작
- 장례토털 서비스 (최저가 최고서비스)

주사무소 : 광명 금하로539
지사무소 : 광명 오리로370-1
문의 : 02-2616-3337

이사장 : 김 형 호
010-6202-9765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
성 산 요 양 원



원 장
조 상 희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9번길 14(철산동)
Tel. 02) 2684-0069
Fax. 02) 2614-6861
E-mail. shcho1219@hanmail.net
Mobile. 011-335-5246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상애케어센터가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들 풀

캐주얼 미씨 숙녀복 전문

황 미 레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27-12(102호)

Tel. 02-2681-8847

Mobile. 010-4548-8909

글로벌 뷰티 & 헬스케어 기업 www.nuskinmall.co.kr



PHARMANEX®

KR2447027

이 경 애

H.P: 010-9797-33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0(대치동)
상제리제비빌딩 B동 304호

청호 싸릿골 가든

가마솥 사철탕/오리/닭도리탕
삼계탕/웃닭/웃오리/두루치기

사 장 정 영 숙

H.P: 010-5605-2378

TEL: 02.891-4000/895-4000

광명시 구름산로 10(하안동) **대형 연회석 완비**